

전주매일

금연상담전화 | 1833-9030
TEL: (063) 859-2400 ~ 2410 FAX: (063) 859-2414

비수술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천변 2길 6번지

2018년 12월 7일 금요일 (음 11월 1일) 제2186호

www.jjmaeil.com

대표전화 (063)288-9700

전북도, 유망 중소기업에 대출금리 3.9% 감면 혜택

한전·기업은행 등과 동반성장협력 협약 올해부터 매년 10억원씩 2022년까지 예탁

전북도가 유망 중소기업에 최대 3.9%까지 대출금리 감면 혜택을 제공한다.
전북도는 6일 혁신도시 한국전기인프라공사 창조홀에서 나석훈 경제산업국장을 비롯해 조성완 한국전기인프라공사 사장, 조충현 IBK기업은행 부행장 등 관계자 1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한국전기인프라공사(이하 '공사'라 함), IBK기업은행(이하 '기업은행'이라 함)

과 '공사 협력기업·전북지역 중소기업과 상생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동반성장협력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은 전북혁신도시에 본사를 두고 있는 한국전기인프라공사가 전라북도 이전 공공기관으로써 선도적으로 지역 내 유망 중소기업들을 지원하고자 추진한 사항으로, 이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확대에 힘을 보태기 위한 취지이다.

협약에 따라 '공사'는 올해부터 매년 10억원씩 2022년까지 총50억원을 '기업은행'에 예탁할 계획이며, '공사'가 '은행'에 맡긴 예탁금을 기반으로 재원을 마련해 대출자금이 필요한 중소기업들에게 저리의 자금을 지원해 줄 방침이다.
지원대상은 전북도와 '공사', '기업은행'이 추천하는 중소기업으로 하며, 기업신용도 등을 평가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선정된 기업은 '기업은행'을 통해 운영자금 대출 시 최대 3.9%까지 금리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김진성 기자

전북 국제금융컨퍼런스 개최

전북도와 국민연금공단이 공동 주최한 '2018 전북국제금융컨퍼런스'가 국내의 금융전문가 및 금융업 종사자, 일반시민, 대학생 등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6일 국립무형유산원에서 개최됐다.

금융허브를 향해 전진하는 전북의 미래 발전전략 모색과 국내 세계 금융의 흐름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에는 세계적인 경제 금융분야 전문가 14명이 발표와 토론에 참여했다.
행사는 한국경제 발전사의 산증인이자 문재인 정부의 경제멘토인 박승 중앙대학교 명예교수 겸 前한국은행 총재가 '전북금융센터 출범을 기대하며'라는 주제의 기조연설로 문을 열었다.
박 총재는 연설을 통해 "수출주도의 경제성장기 어려워지고, 고용문제 및 소득 자산 양극화가 심화된 오늘날, 내수주도로 경제성장을 이끌고 양극화를 해소할 새로운 성장엔진으로 금융산업이 주목받는 분야"라고 강조하며, "전북에 금융센터를 개설하여 기업의 효율적인 운용 새만금 개발사업을 뒷받침함으로써 한국의 금융발전, 나아가 한국경제의 균형적 발전을 도모해 나갈 것"을 주문했다.
송하진 도지사는 "금융발전 방안에 대해 상호협력을 강화해 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진성 기자

전북 교육정책 이해 높이기

김승환 교육감, 공무원 대상 '소통공감데이' 행사 진행



김승환 전북교육감이 6급이하 지방공무원들과 대화의 시간을 가졌다.
6일 국립무형유산원 누리마루 북카페에서 교육감과 6급이하 지방공무원이 함께하는 '소통공감데이' 행사를 진행했다.
이번 간담회는 6급이하 공무원들과의 진솔한 대화를 통해 참여·소통하는 직장문화를 조성하고, 전북교육정책을 이해도를 높이며 현장의 의견을 공유함으로써 교육정책과 현장의 공감대를 형성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도내 14개 시·군에서 지역별 지방공무원 구성 비율에 따라 배정된 지방공무원 중 참여를 희망한 46명과 지방공무원 노조대표 등 50여명이 함께했다.
이들은 평소 교육감에게 궁금했던 사항은 물론 인사제도 건의, 전북교육정책 제안 등 다양한 대화를 이어갔다.
공직생활 5년차에 두 아들을 키우고 있다는 한 직원은 김 교육감에게 꿈에 대해 질문했다. 이 직원은 "둘째 아이가 열마의 꿈이 뭐냐고 물었는데 대답을 하지 못했다"면서 "교육감님의 꿈은 무엇이었는지 궁금하다"고 질문했

다.
이에 김 교육감은 "꿈과 직업은 다르다. 예를 들어 아이들에게 꿈을 물으면 '의사'라고 대답하는데 이것은 꿈이 아니고 '직업'이다. 꿈은 의사가 돼서 '무엇을 할 것인가'이다"면서 "꿈은 계속 진화하는 것이다. 교육감으로서 이 자리에서 꾸는 꿈도 계속 진화중이다"고 말했다.
또 다른 직원은 4차산업혁명 시대에 교육공무원들의 역량강화 방법에 대해 물었다. 김 교육감은 "독서"를 한 방법으로 꼽으면서 "아날로그의 반격"이라는 책을 추천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 참여한 한 공무원은 "편안한 분위기에서 교육감과의 격의 없는 대화를 통해 전북교육정책을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됐다"면서 "앞으로도 일반직 지역교육청, 일선 학교 직원들과 소통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눈과 단풍, 그리고 사람이 만나...



첫 눈이 내린 6일 정읍시청 옆 충무공원이 한 폭의 풍경을 그려냈다. 채 떨어지지 않은 붉은 빛과 고운 앞에 새하얀 눈을 이고 있는 단풍나무 아래에서 한 시민이 산책을 즐기고 있다.

내년 국공립유치원 1080학급 신·증설

유은혜 교육부장관, 세부 이행계획 발표

내년 3월 692개, 나머지는 9월 수용 가능 정원 2만여명 늘어 전북지역은 36학급 늘어나 학부모 요구 반영 서비스 개선

정부가 2019년 국공립 유치원 1080학급을 신·증설하기로 했다.
유은혜 교육부장관은 6일 기자회견을 열고 '국공립유치원 학급 신·증설 관련 세부 이행계획과 서비스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지난 10월 발표한 유치원 공공성 강화 방안 가운데, 국공립 유치원 1000개 학급 확충에 대한 구체적인 이행 계획이다. <관련기사 5면>
이에 따라 국공립 유치원이 수용할 수 있는 유아 정원은 2만 여명 늘어난다. 올해보다 11.7%가량 늘어난 수 치다. 2021년까지 국공립 비율을 현재 25.5%에서 40%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정부는 신·증설하기로 한 1080학급 가운데 692개 학급은 내년 3월, 나머지 388개 학급은 9월에 개원한다고 밝혔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전체 30%가량인 321학급은 단설유치원(매입형 포함)으로, 62%가량인 671개 학급은 병설로 마련된다. 나머지 88학급은 공영형 유치원으로 개원할 계획이다.
다만, 신설 유치원의 다수가 단설보다는 병설 중심이어서 한계점이 남는다.
정부는 학부모들의 선호가 높은 단설유치원을 추가로 마련하기 위해 내년 1월 중앙투자심사위원회를 열어 30여개 정도의 단설유치원 추진계획(2~3년 소요)을 심사할 계획이다.
국공립이 가장 많이 들어서는 지역은 경기도로 240학급 늘어난다. 이어 서울이 150학급, 경남이 68학급, 전북이 36학급 순이다.
이와 함께 학부모 요구를 반영한 국공립 유치원 서비스 개선도 추진

한다.
우선, 국공립에서도 오후 돌봄 서비스가 마련된다. 내년부터 맞벌이와 저소득, 한부모 가정 등 돌봄이 꼭 필요한 경우 오후 돌봄 참여를 보장하고 아침과 저녁 돌봄 체계도 마련할 계획이다.
또, 내년 여름방학부터는 방학 중에도 돌봄 서비스를 보장하고, 통학권역이 넓은 농어촌 지역이나 집단폐원 등 위기지역을 중심으로 통학차량을 우선 지원할 방침이다.
교원 수급의 경우 임용 대기자를 먼저 충원하고 기존 교원을 재배치할 예정이다. 아울러 행정안전부 등과 논의해 교원 정원을 늘리고 상반기 중 신규 교사를 선발해 9월에 현장 투입할 계획이다.
정부는 폐원 예정 유치원의 유아가 등록할 유치원을 찾지 못한 경우 처음학교를 통한 온라인 일반모집이 종료 뒤에도 공·사립유치원 배치를 적극 지원하는 등 구제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장은성 기자

*토·일요일 신문 읽는다.

모두가 탐내던 바로 그 자리-
누구나 살고 싶은 오투그란데!
모현 오투그란데 | 프리미어 |

10월 19일 GRAND OPEN
10월 25일 1순위 청약

모현 오투그란데 PREMIUM 6

First 멀티교통망 23번·27번국도, 시해안고속도로, 호남고속도로, KTX익산역 등	First 교육환경 단지 인근 익산시립모현도서관, 초·중·고교가 밀집된
First 생활인프라 바로 앞 농협 하나로마트, 롯데시네마, 우체국, 경찰서 등	First 주거환경 단지 인근 배산택지(주)호공원, 모현공원, 배산체육공원 등
First 생활인프라 전북최초 히든주방(Heaven) 및 호텔식 욕실 설계, 필터 교체 가능한 환기 시스템 전 침실 적용	First 브랜드 전북 내 가장실적 1위, 30여년 역사의 든든한 건설기업

1522-3382

모델하우스 | 익산시 평동로 632(민화동 1가 134-3번지) 84㎡ (253세대), 118㎡ (85세대)
현 장 | 익산시 모현동 731번지 총 338세대